

#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7차, 갈릴리 에서의 예수의 사역, 1부,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의 사역, 루가복음 4:14-41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여기는 댄 다코 박사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7, 갈릴리에서의 예수 사역, 1부.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의 사역, 루가 복음 4:14-41입니다.

루가 복음에 대한 성경 e-러닝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루가 복음의 초기 세션, 특히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를 따라왔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예수님과 갈릴리에서의 그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유아기 이야기를 살펴보고, 유아기 이야기에서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준비 사역을 살펴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갈릴리에서의 예수의 사역을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이 이 자료를 살펴볼 때 몇 가지를 염두에 두도록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가 성령이나 영의 표현을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그리고 영이 어떻게 특징지어졌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악마의 활동, 즉 악령의 역할에 대한 영 우주론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사역에서 사탄이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은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이미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왕국의 핵심 부분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그저

남자와 여자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거나 안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옵니다. 악마와 그의 무리, 악마와 그의 활동이 통제력을 잃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살펴보면, 4장 14절을 잠깐 살펴보고 누가가 그 전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유혹 직후이고, 그는 유혹 후에 악마를 이겼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영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그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방에 퍼졌으며, 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짧은 인용문에서 몇 가지 메모를 하겠습니다. 일부는 문화적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 누가는 예수에 대한 소식이 이미 전해졌다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세례와 비둘기의 형태로 그에게 임한 영의 눈에 보이는 표현에 대한 소식인지 아니면 유혹을 이긴 그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예수의 사역이 그의 고향 지역이나 그가 온 지역으로 앞서 갔고, 그는 이 명성과 그가 다룰 모든 일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것은 내가 앞서 언급한 회당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교육하는 장소인 회당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고향의 회당과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가버나움과 같은 곳의 회당을 방문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제가 때때로 영어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리스어 본문을 읽고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전통적인 서양 문화, 즉 영어 원어민 문화와 나머지 세계 및 그들이 일하는 문화 사이의 격차로 인해 어떤 것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가 그리스어

단어 doxasos를 사용할 때 , 그것은 4장 15절에서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저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신비롭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명예와 수치 문화에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는 사람입니다. 그의 명성이 그를 앞지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명예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를 앞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과 같은 종류의 표현으로, 때때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영어를 합니다. 그들은 제 모국어인 아랍어 대신 다른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거실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영어로 무슨 뜻인지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종종,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 집의 실험실, 즉 제 가족과의 상호작용은 어떤 번역은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 여기서의 전환은 먼저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것이 영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는 영의 능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구약의 모티브 중 일부를 떠올려보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재판관,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실 것입니다. 명예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대중의 주목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명성은 항상 그를 앞선다. 그래서, 그렇다, 그의 명성은 그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 지역에 널리 퍼졌다. 누가 그의 가르침에 대해 우리에게 주는 즉각적인 경연은 회당이 될 것이다.

회당은 모임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몇 분 후에 회당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 잠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당에서 가르칠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교육을 위해 가는 전통적인 장소이며, 그들은 때때로 문화 모임과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예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5절에서 그가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 그를 경배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정말 어색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나중에 같은 지역에서 심문을 받을 예수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아마 마을 지역에 있다면, 예를 들어, 제가 제 마을에 가서 그런 일을 했다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했다면, 누군가가 "아, 저 사람이 우리가 축구를 하던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좌익에서도 별로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고,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 제 모든 불완전함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영광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위엄 있고 경배하는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능숙하다는 것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그는 권위적이거나 자신이 가르친 자료에 대한 권위나 통달력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경을 명령할 것입니다. 그것은 명예를 명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몇 강의에서 회당에 대해 몇 번 이야기할 것이므로,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이 회당 전통 전체에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의 포로로 넘겨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열 지파는 실제로 아시리아인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빌로니아와 바빌로니아가 와서 나머지 지파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들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의 기록을 떠올려보면 느부갓네살과 그의 행정부의 후원 하에, 군사령관인 느부갓네살과 그의 팀은 이미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면서 그들은 고향 성전의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대한 기억과 종교적 신념을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배 중에 그들은 성전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배지에서 회당은 종교적 학습 경험과 어떤 종류의 예배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두드러지게 부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회당에서 성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희생을 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모든 종교적 가르침과 모든 종교적 경험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망명 중인 유대인 회당을 미국의 디아스포라 교회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디아스포라 교회는, 제가 가끔 그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는 한국 교회에 가면, 우리가 일요일에 하루 종일 보내는 곳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가서 서비스를 끝내고, 우리는 한국 음식을 먹을 것이고, 서비스는 전부 한국어로 진행될 것이고,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저는 그저 고맙다고 말하고 좋은 말을 해서 제 접시에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문화 경험입니다. 음식은 정통 한국 음식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자라지 않은 2세대 아이들조차도 모든 경험을 통해 상호 작용을 듣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한국적입니다. 깊은 문화적 경험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교회에 가는데, 사실 그 중 한 교회가 제 고향인 가나에서 온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저는 지도자들에게 가나의 길을 조금 완화해서 가나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교회에 환영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그곳이 문화적 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에 대해 배우는 장소이지만, 고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누가 언제 돌아올지, 누가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신에 대해 배우고, 문화에 대해 배우고, 특히 망명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이들에게 배우는 장소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고향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정체성은 신과의 언약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회당은 진정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망명 생활에서의 종교적 경건함은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랄 것이고, 사람들은 토라에 대해 배우고 토라에 대한 지식 기반을 배우고 개선하며, 유대인의 삶의 형성적 측면을 종교적 신념에 뿌리를 두기 위해 많은 토라나 히브리어 경전을 암기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당 예배는 종종 망명 생활에서 태어난 경험에 기인합니다. 회당 예배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삭 시대에

두드러졌고 유대인들이 망명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배 후 모든 유대인이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유대인이 유대에 정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70마일 이상 떨어진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는 이 지역의 유대인 모임과 종교 활동의 대부분이 회당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은 수행해야 할 특정 의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집트나 시리아 사이의 제국의 나머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1세기에 현대 터키에 많은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주로 회당에서 모임과 문화적 경험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 가끔 예루살렘에 올 것입니다. 그러니 몇 가지를 말씀드렸으니 여기서 누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지만, 누가는 16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일어서서 읽으셨고,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이 쓰여진 곳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구절로 돌아가겠지만, 여러분이 화면에서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는 동안 몇 가지 관찰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분은 회당에서 가르치실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볼 수 있듯이요.

이 특정한 맥락에서 독서할 때, 그는 일어나서 독서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차이점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두루마리를 펼쳤다고 들었습니다. 꾸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긴 두루마리의 증거는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매우, 매우 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주어진 이사야서의 매우 긴 두루마리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바로 이사야서 61장으로 넘어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문이라고 부르는 이사야 61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의 고향에서 펼쳐질 몇 가지 일을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운동은 제2 성전 유대교에 뿌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사렛은 마을을 좋아한다면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관습대로, 그것이 그가 회당에 간 첫 번째가 아니었고, 그것이 그가 회당에 간 마지막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의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성전 문에서 불구자를 도우셨던 때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평범한 유대인처럼 기도할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는다면 바울이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할 때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회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 공유하고 알려진 것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환하여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온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 우리는 그에게 주어질 두루마리가 아마도 우리에게 친숙한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 두루마리일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시의 언어이자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사람들이 아람어를 읽는 데 얼마나 능숙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방대한 아람어 자료나 사본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이거나 유대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던 칠십인역일 수 있습니다.

하워드 마셜과 아크트마이어 같은 일부 학자들은 예수가 실제로 히브리어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모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그가 갈릴리에서 자랐고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모든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가 라틴어를 약간 알았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회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는 증인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놀랄 때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와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제발, 4장 22절에서 그 표현을 읽을 때마다 그것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할 때, 이들은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나사렛은 뉴욕 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때때로 진흙 속에서 놀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회당에 와서 그는 심오한 일을 하러 들어왔고,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끼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그가 자신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그의 신뢰성에 대한 찌르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실제로 비전, 즉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선택했을 때, 누가는 그가 바로 두루마리의 일부를 읽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선언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8절에서,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보내어 포로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가 복음에 따르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시려면, 성령이 세례를 받는 동안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가 유혹을 받기 위해서도,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유혹을 받았습니다.

4장 14절에서 우리는 그가 갈릴리, 즉 자신의 지역으로 오기 전에도 영의 권능에 이끌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는 이사야의 두루마리, 이 긴 두루마리를 가져갔는데, 얼마나 우연의 일치입니까. 누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구절의 부분으로 바로 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언적 망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세례에서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기름을 부어 소리 내어 전파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할 분야와 그것이 복음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명령받았거나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는 복음의 나머지 부분에서 누가복음에 이름이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포로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본문의 다른 곳에서 포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악마의 세력에 의해 묶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사역의 일부가 될 그러한 경험들 중 일부에 대한 암시일 것입니다.

그는 또한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도록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같은

곳에서 때때로 눈먼 자나 시력 회복에 대한 언급이 조명, 즉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상처받은 자와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나중에 찾을 수 없지만 여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혀 자기 파괴적이어서 묘지에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의 능력과 연관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사역의 그 부분을 암시하고, 물론, 주님의 받아들일 만한 해의 선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 전통에서 알고 있는 희년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 강의 시리즈를 따라가는 21세기 기독교인이라면,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식하는 방식입니까? 당신이 이미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의 위치를 그렇게 인식합니까?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는 몇몇 기독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여권과 비자를 주었고, 이 비자는 만료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료일은 당신이 죽을 때 또는 제가 돌아와서 당신을 천국에 데려갈 때이고, 그들은 그것이 제가 필요한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게 전부이고, 그래서 모든 영은 그들을 죽음으로 무섭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선언문은 매우 다릅니다. 여기서 그의 선언문은 그에게 임한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고민을 다루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다루고,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회복시키고,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통찰력, 조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고, 심지어 그의 사역과 함께 오는 해방에 대해 말하는 희년에 대한 암시를 가져오는 것을 좋아한다면. 아크트마이어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종말론적 희년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구원의 시대에 대한 극적인 암호는 해방의 사역으로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해방은 치유와 비전주의에 대한 설명에서 즉시 설명됩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 우리는 루가가 세 가지 방식으로 해방의 개념과 경험을 발전시키는 것을 봅니다.

악마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어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더 높은 지위와 큰 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과 특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약화시키는 죽음의 순환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셋째, 죄의 해방 또는 용서입니다.

네, 예수님은 수평적, 수직적 차원을 모두 지닌 사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강의 시리즈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생각하거나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매일 평범한 사람을 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적인 차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보살핌, 존경, 예의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면서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선언문을 말한 후에 실제로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몇 가지 발언을 하실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나에게 이 속담을 인용할 것이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상할 것입니다. 이사야, 자신을 치료하라.

즉,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과 같은 기적을 고향에서도 행하라는 뜻이다 .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물론, 그들은 이미 예수의 신뢰성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고, 예수는 이미 그들을 예상하고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는 그들이 모두, 특히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치유하라(Healthy yourself)는 고대 세계에서 매우, 매우 흔하고 잘 알려진 격언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래, 알아요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만, 저는 다른 곳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받아들여지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제 고향 사람들이 저를 거부한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저를 거부한다면, 글썄요, 저는 저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그분이 부르시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글썄요, 나사렛이 저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나사렛조차도 저를 거부한다면, 저는 유대인의 예언적 전통에서 그런 일을 겪을 첫 번째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민족에게서 같은 종류의 패턴을 경험하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돌아가서, 자신을 치료하고, 잠시 후에 예언적 전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린은 잘 알려진 격언인 의사야, 자신을 치료하라에 대해 쓰고, 이 격언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자신의 관계에 베푸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계에 같은 혜택을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역의 측면에서 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누가는 그가 사역을 시작한 바로 그 자리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시작한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순탄한 곳이 아니었지만, 그가 시작한 곳은 그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밝힌 곳입니다. 그를 예언적 전통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는 24

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는 고향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25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곧 하늘이 삼 년 육 개월 동안 닫히고 큰 기근이 땅에 임하였을 때에 엘리야는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보내졌고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나 그들 중 아무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곧 그의 고향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분노하여 일어나 그를 마을에서 몰아내어 그들의 마을이 세워진 산의 벼랑까지 끌고 가서 그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안개 속을 지나가다가 떠나가니라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격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예수께서는 재빨리 몰래 빠져나가셨느니라

하지만 다툼의 요점은 무엇이였을까요? 다툼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로서 자신의 백성에게 와서 사람들이 그를 부인하게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부인했을 때, 그는 다른 곳으로 가서 어떤 예를 들 것인지 추측하셨습니다. 그 예는 사람들을 매우 화나게 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불신이나 불신앙과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추측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이방인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이방인 여자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이 지역을 이방인들에게 남겨두고, 우리가 완고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별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야의 옛 선지자적 전통처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불러일으킵니다.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촉발합니다. 그가 또 무엇을 할지 아십니까? 제가 읽은 구절에서 예수께서 두 번째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을 엘리야의 선지자적 전통에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일에 사용하려 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시리아의 이방인 땅으로 가서 나병 환자 나아만을 고쳤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이것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을 보고, 당신이 그 곤경에 처해 있거나 그들의 입장이라면 당신도 화가 났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들은 당신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유대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회당에 와서 우리 모두가 그를 알고 있던 곳에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집어 들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고 말했고, 지금 우리가 우려를 제기하자 그는 들어와서 이것이 자신이 선지자이고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 백성의 기억 속에 알려진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의 친구는 유대교 랍비였는데, 1세기의 엘리야는 일반 유대인의 마음속에 산타클로스나 강력한 인물로 여겨졌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 위대한 사람의 예언적 전통에 따라 왔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걱정할 때, 그는 우리가 너무 완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이방인들과 일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일을 열어주십시오. 자신을 예언적 전통에 두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촉발시키고, 그것이 예수께서 그의 사람들과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이유의 일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위대한 교사의 사역으로만 여긴다면, 당신은 착각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문에서 이 수준까지, 그는 자신을 예언적 예수로 자리 매김하거나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예언적 인물과 교사로

모두 오시고, 그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서 듣고 회개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그가 기적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고향에서 완고해지면 그는 이방인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회당에서의 분노는 유대인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인 소송 사유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쫓아냈을 때, 우리는 예배의 집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달랠 수 없었고, 그들의 분노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마쳤을 때 누군가가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가르침이 싫다고 말하고 갑자기 우리의 모든 은혜로운 기분과 연민이 뒤집히고 너무 화가 나서 교회에 있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진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상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곳에서 사람들을 자극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누가는 그가 어차피 몰래 빠져나갈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왔다고 말하고, 당신이 나를 거부하고, 심지어 나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얼굴에 눈에 띄는 때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나에 대해 들을 때, 사실 당신이 나를 골랐고, 나는 당신 손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회당에서 당신에게 말했던 이 일들을 나를 통해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역으로 도피하셨고,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의 한 도시에서 그는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네가 누구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여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를 안개 속에 던졌더니 아무 해도 입히지 아니하고 나오니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와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느니라.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역에 열정적이고 설레며, 오늘 그가 미국, 저의 세상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그가 가르치기 위해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미 안식일에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었고, 사람들은 그가 안식일에 가르치는 것을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 있는 그의 고향에서는 그가 두루마리를 읽고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귀에 성취되었다고 말했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여기서 그는 더 큰 마을에 왔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의 사역을 인정했고, 그에게 안식일에 가르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사역을 성스러운 성전 유대교에 정확히 두고 있습니다. 둘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르치고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렸을 수 있을까요?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영적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여러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가의 기록에서 우리가 실제로 아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루가는 누군가가 가운데 귀신 들렸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그 귀신의 지배, 회당에서 그 악령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랄 것이고, 그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주실 때 작용하는 능력에 놀랄 것입니다.

영의 우주론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바울 학자들은 제가 이 특정 주제인 영의 우주론에 대해 너무 많은 소리를 낸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그가 살았던 세상이 악령, 악한 영적 권세들이 언제든지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면,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여 그들에게 속박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여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자유를 얻어 삶을 살고 번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단계를 밟고 천국 비자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포로 상태와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이 사역으로부터 온전히 혜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치유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또 다른 측면은 오늘날 서양 세계에서는 많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었고, 그는 그것을 썼습니다. 저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고열로 병들었더니, 사람들이 예수께 간청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 위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 다시 섬기기 시작하니라. 40절 해가 지려고 할 때에, 온갖 병을 앓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예수께 데려왔고, 예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이 부르짖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부르짖자,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더라.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요점을 설명하고 이 특정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요약에서 강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데려온 모든 병자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것은 쇼맨십이 아니라 쇼맨십이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적 돌봄이었습니다. 그는 각자를 자신의 개인적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말할 수도 있었고, 그들은 치유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 각자에게 손을 얹어 그들의 몸을 치유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전개되는 사건에 대한 간단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데려오신 상황을 관찰합니다.

이 기록은 그곳이 피터의 집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줄에는 그의 시어머니가 열병으로 아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구 국가에 있으므로 여기서 문화적 간극을 메우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부의 집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부부가 시부모와 함께 집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저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단위는 오늘날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북아프리카와 다른 중동 국가에서는 2019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린아이이고, 성장하고 있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이에 상관없이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랍어권 국가들은 여전히 이것을 지키고 있어서, 오늘날 당신이 여성이고, 50살이고, 결혼하지 않았고, 부모에게서 떨어져 살더라도 사회는 당신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른 도시에서 일하지 않는 한,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매우 나쁜 생활 방식을 살려고 하거나 부모의 눈에서도 망치려고 하는 것과 같은 폄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이제 결혼과 시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전히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은 매우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미국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는 여전히 결혼하면 시댁과 함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해 생각한다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프라이버시는 같은 층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젊은 부부가 아래층에 살고, 부모님이 위층에 살거나, 부모님이 아래층에 살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믿으실지 말지, 저는 아랍어권 국가에서 문화 지능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의 매년, 저는 시부모님과 살고 있고, 그의 어머니가 주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할머니의 시부모가 요리할 공간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큰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한다면, 시아버지, 집에 사는 형제자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모두 모여서 먹을 때, 아니, 음식이 엄마의 음식만큼 좋지 않다고 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화를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 기록에서 우리는 이곳이 피터의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줄에서는 그의 시어머니가 집에서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중동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심지어 클릭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제발, 사람들이 제게 시어머니와 같이 살라고 하지 말라고 하거나, 시어머니에게 저와 같이 살라고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저는 거기에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피터의 시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열을 치유하셨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그녀에게서 나가라고 열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열이 즉시 떨어졌고, 그녀가 봉사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같은 마을의 회당에서 일어난 일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려와 치유하고, 악령이 들린 사람들을 데려와 구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주의를 끌려고 하는 귀신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목사라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어떤 장소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누가는 그들이 사람들을 알아보고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 부른다고 일관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지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경우, 귀신 들린 사람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오늘날 카리스마적인 설교자이고 귀신 들린 누군가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예요."라고 말한다면,

부은 머리를 가지지 마세요. 가서 “오, 물론입니다. 저는 신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세요.

때때로 악마는 “우리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주의를 돌리려는 악마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꾸짖으셨고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들었습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세션이 끝나갈 무렵,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는 고향의 회당에 갔습니다.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에 기록된 전통에서 그의 사역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질문을 받고 질문에 반응했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이방인을 위한 그의 사역을 언급했고,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 그들이 불신앙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에게 사역을 위해 보내시고 예언적 전통에 자신을 확립하실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화가 나서 그를 죽이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는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

그곳에서 그는 회당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술가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나중에 , 그가 회당을 떠났을 때, 그들은 베드로의 집에 왔고, 그곳에서 그의 장모를 만났고, 예수는 그의 장모를 고쳐주었습니다. 저녁 늦게, 예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이 퍼져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고, 그는 그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해야 할 일의 평범하지 않은 일입니까? 아니요.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고, 포로를 풀어주고, 심지어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 삶의 다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가 한 가지 목표, 오직 한 가지 목표로 사람들의 삶을 만져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방식대로 자유롭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하거나, 적어도 이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댄 다코 박사와 그의 루가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7, 갈릴리에서의 예수 사역, 1부.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의 사역, 루가복음 4:14-41입니다.